

사·부·대·중

불교적 삶의 기록

얼마 전에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한 외국인 친구로부터 짧은 글을 받았다. 안부 인사를 겸한 부탁의 내용은 일간지 한 면 분량의 우리말 기사에 대한 영역이었다. 2년 전에 입학한 한 비구니의 삶을 영여온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기사에 나타난 해운 스님의 치열한 구도의 삶과 수행자로서 대중과 함께 한 보살의 삶은 감동 자체였다. "여시래 여시거 거래일여 청풍만리"(如是來 如是去 去來一如 清風萬里)라는 열반송을 뒤로하고 입적할 때까지의 그 분의 삶은 수도자와 보살의 삶이 무엇인가를 예시해 준다. 선지식의 지도를 청하는 1주일 동안의 10만 배 일화, 수행 중에 동침한 교단정화운동, 10년간의 입승, 지천명의 나이에 마친 3년 결사, 고회의 나이에 투신한 사회복지일, 외내내의 성품 등. 나는 그분의 불교적 삶을 접하고서 나의 내태함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분의 존재조차도 몰랐었다는 무지함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여 나는 구도와 보살의 삶을 살았던 분들에 대한 전기나 기록



안옥선 전남대 강사·철학

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윤리이론이나 학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혹은 '이렇게 살자' 등의 말도 아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러한 말은 온 몸으로 드러낸 삶의 구체적 모습들이다. 마찬가지로 불교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고무시키고 고양시키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보려는 것은 드러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혹은 그러한 삶을 드러낸 인격체들이다. 불교의 가르침마저도 그것을 온 몸으로 드러내었던 한 분, 또 그 이후의 많은 분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러한 까닭에 불교의 가르침은 온 몸으로 드러낸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이나 전기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불교의 역사 속에는 어떤 저술도 남기지 않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 자체로 표현한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 그 분들에 대한 기록이 가져져 있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공동경제를 옹호한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불교바로세우기재단, 정토회 등 국내·외 40개 종교단체들은 19일 '세계화와 영성 그 대안적 가치'를 주제로 한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민간포럼 종교분과 국제회의에서 "물질 경제 위주의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는 인간의 영성과 자연을 파괴하면서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세계화의 거센 파고 앞에서 종교인들은 사회·문화·종교적 편견을 넘어 상호 협력해 모든 인간과 자연의 평화 정의·조화·인권·상호존중을 증진되도록 노력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국내 종교단체들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6~20일 서울에서 열린 제3회 아셈 민간포럼에서 처음 구성된 종교분과위원회는 세계화의 문제점을 종교적인 시각에서 지적, 대안을 제시했다.

불교의 지혜 세계화 물질문명 한계 극복

■불교적 대안
태국의 불교환경·인권 운동가 슬라시바락사는 18일 서울 건국대에서 열린 '세계화에 도전하는 민중의 행동과 연대' 주제의 아셈 2000 민간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인간화된' 세계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불교가 물질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슬라시바락사는 "사회화, 심리학, 인류학 등 인접과학의 연구결과를 불교의 인식으로 전환하는 학문적 작업을 통해 불교의 지혜를 세계화 등 사회문제의 대안방안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불교는 부유층에게만 인정받는 종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불교는 우리의 탐·진·치 삼독과 무아의 경정심을 자극하는 물질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성제, 열반, 연기, 무아

"신자유주의 반대 생명공동경제 옹호"

아셈 2000 민간포럼 종교분과 회의

획일적 시장경제 논리 지역문화·영성 파괴

■경제 세계화 반대 이유
종교NGO들이 이처럼 세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 세계화'라는 획일적인 시장논리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영성(靈性, Spirituality)을 파괴시키거나 우스꽝스런 전사물로 만들고 있다는 데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된 아셈 민간포럼 종교분과 회의의 목적도 '시장만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라고 보는 현재의 세계화에 대해 새로운 영성적 가치를 회복하자'는 데 있었다.

스리랑카 사르보다야운동 창시자인 아리아 라트네 박사는 16일 종교분과회의 기조발제에서 "세계화는 탐욕과 착취의 물질만능주의를 가속시켜 불성을 지닌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과 자연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화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자살과 살인, 아동 및 여성학대, 생태적인 삶의 기반 붕괴, 사회적인 마찰이 야기되어 결국 인간성의 파괴, 사회적 불안정, 생태계 파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신학자인 울리히 두크로는 "세계화는 지역과 원주민의 고유문화를 파괴시킬뿐 아니라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패러주위를 특징으로 하는 비폐문화화 전파시켰다"며 "국제적인 외채 부담으로 많은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금융자본은 인간의 삶을 위한 정신적·물질적 기반 자체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간성 회복 급선무 생명 중심사상 촉구

■자연과 인간 살리는 세계화 종교시민단체들은 인간의 영적 가치

를 존중하고 자연을 살리는 세계화를 촉구한다.

세계화로 인해 파괴된 지역의 정신과 문화, 비인간화된 삶에 주목하면서 세계화에 대항하기 위해선 인간성의 회복이 급선무라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와 영성을 회복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종교단체들은 16-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민간포럼 종교분과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만물의 삶을 가능케하며 평등과 포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제를 희망한다"며 "신자유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생명공동경제'(오이코노미아: oikonomia), 즉 생명중심 사상, 자연존중, 공생(共生)의식, 소욕지족(少慾知足), 가난한 자에 대한 옹호와 정의추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람이 돈보다 우선하며, 생명이 이윤창출보다 우선하는 생명공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공동의 선과 지역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평등한 시장을 추구할 것"을 주장했다.

등 불교의 전통교리를 이론으로만 보지 말고 개인과 사회변혁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부에 집착하지 말고 가르침에, 불자는 부를 정당하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부에 집착하거나 예측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와야만 마음과 물질은 나누는 불교를 현세에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 즉 불교가 중심이 되는 사회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지, 기꺼이 서로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

(jgkim@buddhapia.com)

목탁소리

김재경 (취재1부 기자)

진관스님의 각오

불교계에서 인권운동하면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 조계종총서리 사면복권 운동본부 공동대표)을 떠올리는 것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불보지와 다름없던 불교인권운동에 관한 남다른 열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교인권운동의 일천(日淺)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진관스님이 요즘은 '인권'이 아닌 '종단 화합' 불사에 매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또다시 외로운 고행의 길에 들어선 느낌이다. 진관스님은 15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종단화합 발전을 위한 승려 사면복권을 위한 서명'을 주지 현해스님과 상의한 후 서울로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두부 및 오른쪽 손목, 허리, 왼쪽 무릎에 심한 타박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현재 서울 재동 한국병원에 입원해 있는 진관스님은 16일 응급치료를 입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불교 발전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는 승가의 대화합이 전제돼야 한다. 종단 화합을 위해서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조계종 화합을 촉구하는 시

를 비장하게 낭독하기도 했다. 1963년 15세의 나이로 금산사에 입산, 68년 자문화상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한 이래 진관스님은 4.19학생운동, 불교법난에 저항, 광주민주화운동,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 사형제폐지운동 등 민주화·인권·통일운동에 헌신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과 32년이란 중진급 이상의 법랍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배 스님들로부터 중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적인 연사를 받아가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물론 스님이 관여하고 있는 단체가 과연 책임있게 일을 해 나가는지, 스님의 행동에도 지적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스님들이 그 나이와 법랍에 이르면 편하게 안주하며 '대접만 받고자' 하는 추세에 비춰 볼 때 소신을 갖고 직접 발로 뛰는 그 열정과 헌신만은 높이 사야 할 것이다. 진관스님을 폄하하는 스님들은 과연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종단과 사찰의 소임을 맡아야 할 중진스님 대접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1만5천여 공동체마을 개발 빈민구제

인터뷰 사르보다야 운동 창시자 아리아 라트네 박사

16일 아셈 2000 민간포럼 종교분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한 스리랑카의 아리아 라트네(69) 박사는 불교 대안주민주의 창시자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운동의 창시자다.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친화적 사회, 공동체개발 조성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깨달음의 사회화'를 강조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운동을 전개, 96년 간디평화상과 막사이사이상, 니와노평화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평화운동가다. 17일 정토회 서울 법원사에서 주최한 초청강연회가 끝난 후 그를 만났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비정부기구 공동체운동으로 알려진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운동에 대해 설명해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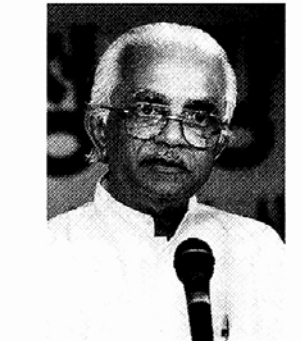
▲'사르보다야'는 만민의 각성이라는 뜻이고, '슈라마다나'는 시간 노력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함께 나누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현재 수십만명의 지원자와 훈련된 일꾼들이 법률서비스, 유아교육, 주

부의 교육과 수입증진, 환경농업 및 수자원 확보, 마을금고 개설, 분쟁해결, 생활수준 향상운동 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 운동을 펼친 동기와 성과는.

▲1957년부터 나는 농촌 마을주민들을 함께 모아서 그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평화적 행동으로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가난한 하나의 마을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1만5천여 마을(1900만 명 중 700여만명 참여)에서 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사르보다야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이가 원하는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 이것이 민족, 종교 등의 장애를 넘어 자신을 각성시키고 나아가 사회 국가등으로 확대시켜 살기 좋은 불국토가 건설되었으면 한다. —한국 정부의 달라이 라마 입국 불허를 어떻게 보나.

▲스리랑카 정부도 달라이 라마의 방한에 대해 부정적이다. 하지만 그는 자비롭고 영적인 분으로 공식석상에서 한번도 중국을 비난한 적이 없다. 달라이



라마를 정치지도자로 보지 말고, 비폭력과 평화를 주장하는 영적 지도자로 보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후세를 위해서도 그의 법문을 통해 문화적 영적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불교에 대한 인상과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 ▲한국 불교단체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동참하고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한국불자들에게 존경심을 표한다. 한국에서도 점차 사회적 실천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더 많은 청년불자들이 가르쳐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면 한다.

49재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남국선원장 해국스님이 알기쉽게,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유희콘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x6판 / 값 3,5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유희콘스님의 영가천도 4x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